Kodac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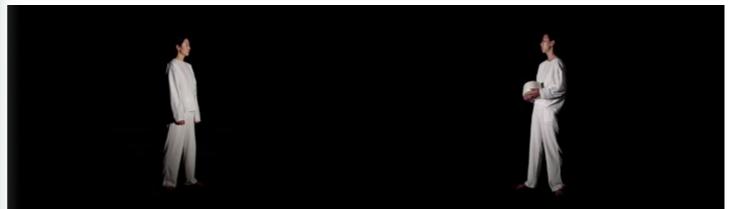
Kodac Ko



영상 링크 https://vimeo. com/764599644/397b8c67d6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이어도에 대한 시각 예술가 고닥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구현된 2채널 영상 작품이다. 제주 해녀들의 노 젓는 노랫말 속 피안(彼岸)의 세계로서 처음 발현된 이후 '이어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바닷속 바위는 현재 상상과 현실 사이에 끼어있던 파 편들을 바탕으로 실재하는 좌표가 되어 수면 위 육체(해양과학기지)를 가지게 되었다. 지역 공동체적 염원을 품고 이어져 내려오던 전설은 오늘날 국가이익의 명목하에 철조 구조물의 고 체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서 동중국해의 정치·외교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있다. 역설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상상의 가능성은 축소되는 것이다. 시인, 사운드 아티스트, 그리고 영상팀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신작을 통해 작가는 이어도를 다시금 무 궁무진한 은유적 가능성을 품은 하나의 변주로 제시하면서 상상과 현실, 존재와 비존재, 관심과 무관심 사이로 관객을 초대한다.

글/이유진









영상 링크 https://vimeo.com/ 599101829/461e6068c5

싱글 채널 영상 <The Room In-Between>은 의식이 있는 수면상태 (Hypnagogia)에의 과도기적 상태를 공간화하고 그와 관련한 시각적 감각을 다룬다. 이 공간은 디아스포라를 통해 생성 혹은 변화한 정체성이 머무는 곳으로 재해석된 장소이다.

한 겹의 눈꺼풀을 감으면, 피부를 통해 투과하는 빛과 눈의 착시로 인한 빨간방이 열린다. 이 빨간방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공간이자 눈을 감고 뜨는 사이의 물리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전환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로 깨어있는 수면의 경계에서 현실과 옅은 꿈은 서로 대치한다. 외부 자극이 다양한 감각 경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긁어내고, 부서지고, 모이고 쌓이는 행위가 일어난다.

상공을 날으는 기내에서 들을 수 있는 적색소음(Red Noise-Brown Noise)이 영상에 전반 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운드는 출발지와 도착지, 현실과 꿈, 의식와 무의식 사이에 떠 있 는 상태를 상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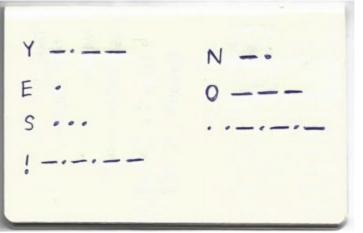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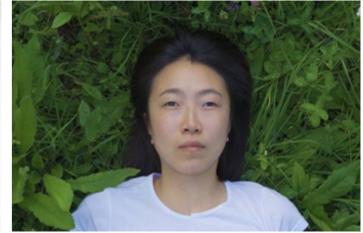
싱글 채널 영상 <Yes and No>는 조지 오웰이 소설<1984>에서 창조한 "이중 사고 (Doublethink)"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중사고"는 두 개의 모순된 신념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긍정과 부정, 질서와 비질서, 개인과 사회, 바깥과 안, 왼쪽과 오른쪽, 가능과 불가능, 현실과 비현실, 인공과 자연, 진실과 허위, 흑과 백등의 상반되는 의미들이 실제로는 서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 사고의 모습을 은유한다.

영상은 반으로 분리되어 모스 부호(Morse Code)로 한 쪽 눈은 Yes! (-.--....---) 다른 한쪽은 No. (-. ---.-)를 눈깜빡임으로 동시에 신호를 보낸다. 한 곳을 향하던 두 눈은 각기다른방향으로 각자의 시선을 옮긴다. 두 눈동자는 두개의 분리, 조정능력을 가지고 Yes 와 No 의 사이를 오간다. 시선들은 고민하며 교차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의 시선으로 만난다.











예스 앤 노 (Yes and No)

2020, 영상설치, 단채널비디오, 5분 42초, 컬러, 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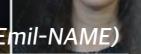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감지되는 문화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말해진 단어들이 가진 의미의 층에서 드러난다.

촬영된 영상 안의 20명의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 독일을 새로운 고향으로 찾은 자신들을 소 개한다. *독일어 알파벳표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과 그들의 모국어에서 그 이름들이 가진 의 미에 대해 독일어로 설명한다.

이름은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단어의 의미, 문화적 전통,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가 족으로부터의 계승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가 주로 사회적 입구로 기능하는 반면에, 여기 에서는 그와 동시에 언어가 가진 한계에 부딪힌다. 모국어로부터 이전된 언어는 그 사 이에 빈 간격, 이름의 단축 그리고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부터 복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글/클라라 휼스캄프 (Klara Hülskamp)

*독일어 알파벳표 (Buchstabentafel)

전화, 전신의 발달과 함께 탄생되었으며, 철자를 발음 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위해 만들어 진 목록이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의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통화중에 철자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쓰인다. 작가는 독일, 오 스트리아, 스위스의 알파벳표를 가능한 이름의 고유명사를 선택하여 임의로 수정하고 작업에 사용하였다. 예시) A-Anton, B-Bertha, C-Cez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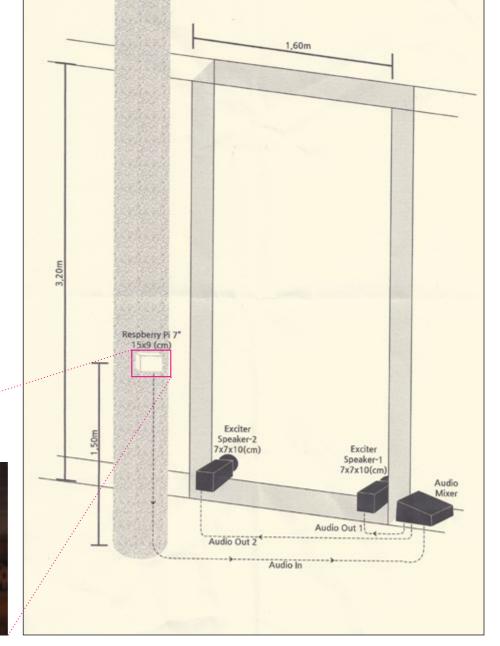


영상 링크 https://vimeo.com/359502622/ d65aca8daf <당신은 최고인가요?>는 파리의 중심가의 한복판인 루 드 리볼리에서 사람들의 이동흐름이 많은 낮과 그 흐름이 적은 밤을 포함한 24시간 재생되는 사운드 설치이다. 이런 환경에서 관객들은 지나가는, 일시적인, 그리고 익명의 관객이 된다. 전시장 유리의 진동을 통해 나오는 톤이 분명하고 또박또박 단어를 전달하는 여자 인조 목소리는 전시장 안과밖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음성이 읽는 스크립트는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 까르띠에(Cartier), 갭(GAP), 러시(Lush), 에이치엔엠(H&M), 망고(Mango), 자라(Zara), 비엠더블유(BMW) 등의 국제적으로 소비자를 두고 있는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 광고 캡션을 수집해 놓은 A4 50페이지 분량의 글을 딥러닝(Deep Learning) A.I.프로그램이 글의 구조를 학습한 후 새로 추출한 글이다. 제목은 추출된 텍스트의 한 문장이다.

생성된 텍스트는 원본이 가진 짧은 문장구조과 낙관적인 단어의 구성형태를 학습하고, 사운드 작업은 이 단어들의 열거와 끊임없는 반복 재생을 통해 그 의미와 사용에 대한 양극성을 환기시킨다.

프로그래밍/엘리아스 나자로(Elias Najarro)





-전(후) P(re)-

영상 링크 https://vimeo.com/ 330338373/c4405060f5 P(re)- 라는 제목은 Pre-('- 전의')와 Re-('- 그 후', '다시') 두 단어의 결합으로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 이 작업은 스위스의 글라루스(Glarus) 지역의 주민들의 협조를 받고 촬영된 영상이다.

어떠한 결과는 그 결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과정의 단계로 연결되는 순환과정이 반복된다. 이 작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위한 과정"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과정"에서 일어나는 힘의 응집에 대해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디까지가 과정이고 어디서부터가 결과의 시작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영상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모으는 과정, 골인하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는 과정, 연주를 위해 악기를 조율,조립하는 과정,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다듬 고 맞추는 과정, 한 쪽 발을 내딛고 다른 발을 내딛으려는 과정 등의 다음 단계로 진행되 려는 순간에 영상은 편집되고 하얀 화면과 잠시 동안의 시간의 공백을 보여준다. 지속적 으로 흘러가는 현실의 시간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작업의 특성과 영상이 주는 이미지 의 정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관람객의 사유와 상상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영 상 구조의 실험을 시도했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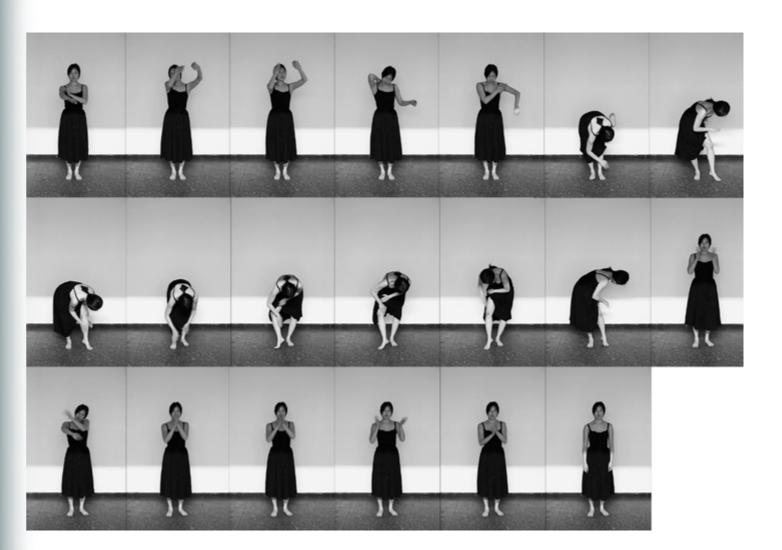


바디클랩 Bodyclap 2016

영상 링크 <u>https://vimeo.com/</u> <u>165678641/f7d4337c1b</u> 양쪽 손바닥의 부딪혀 만드는 리듬적 행위은 동의의 제스처로 통용된다. 손의 내부 표면이 서로 빠르게 접촉할 때, 빈 공간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소리가 생긴다. 연약한 갈채 또는 요란한 박수로서 조절이 가능한 범위안에서 인간적인 소통의 매개체로 우리의 귀에는 이것이 듣기 좋은 소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중요한 제스처로 역할한다.

2분 남짓 동안 피부가 부딪히는 소리는 설치 공간 안에 외롭게 맴돈다. 손바닥은 대칭적인 상대방을 여러 번 만나며, 얼굴, 팔, 허벅지 등을 반복해서, 쉬지 않고 부딪히다가, 어느 순 간 그 행위의 의미가 전복된다. 바깥쪽으로 향하여 관찰자를 향해 다가가는 박수갈채는 제 자신과 제 몸을 때리는 행동으로 연결된다. 흐름이 고조될수록 박수소리는 폭력으로 바뀌고, 관객은 끊임없는 변곡점을 관찰하게 된다.

글_클라라 휼스캄프 (Klara Hülsk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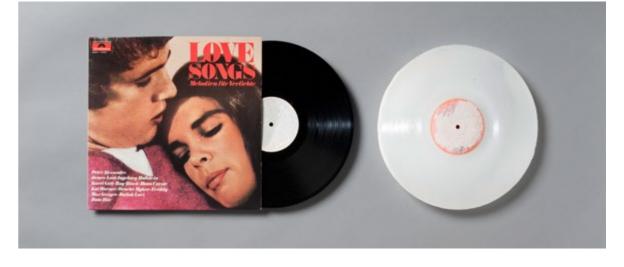
영상 링크 https://vimeo.com/194425127/ 61c6534a60 사운드 설치 <트루러브 시리즈(True Love Series)>는 미디어와 욕망의 관계에 대한 관찰한다. 대중의 염원은 대중매체에 반영되고 대중은 그들로부터 대안적인 만족을 얻는다. 작품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미디어로부터 그것을 해체하여 추상적인 목소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회복시킨다.

사운드 캐리어로서 대중 매체인 레코드 음반 중에서도 제목에 '사랑(영문:Love, 독문:Li-ebe)' 이 포함된 레코드를 수집했다. 레코드의 표면을 목공풀로 음각 캐스팅 하었고, 원본에서 음각으로 본떠진 소리골을 따라 턴테이블에서 재생되었다. 음각으로 떠진 돌 기를 따라 재생되는 사운드는 추상적인 멜로디를 생성하고, 그 곡의 가사는 의미의 형 태를 잃으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진 추상적인 의미의 원점의 상태로 돌려놓는다.









트루러브 시리즈 (True Love Series)



2채널 비디오 설치 <안부를 전하며(Liebe Grüße)>는 하나의 움직임이 물 속과 물 밖의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촬영되었고 그 결과물인 2개의 영상이 서로 마주보고 재생되도록 설 치되었다.

영상 안에서 내가 쓰고있는 글은 독일에 있는 내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쓰는 편지이다. 작은 기기 너머로 쉽게 전하는 말과 달리 글로 써내려가는 편지에는 나의 성찰적이고 부끄러 운 모습이 많이 들어있다. 나는 그런 내 모습 이 부끄러워 감추고 싶어했고, 그것에서 내가 쓴 편지가 다시 나에게로 도착 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의 편지가 물 위에 쓰여지고 먹물로 쓰여진 단어들은 쓰여지는 즉시 물에 흩어진다. 이 것은 쓰기의 행위가 말하기의 행위와 같이 시각화된 형태이다. 물 위의 카메라는 편지를 적어보내는 발신인 나를, 물 아래의 카메라는 편지를 받은 수신인 나를 담는다.



<거울문자> (2015), 아트막스, 브라운슈바익, 독일, 전시전경





빨대 Strohhalm 2013

영상 링크 <u>https://vimeo.com</u> /67257568/97696cd5c8

작업의 제목은 같은 뜻의 단어가 두 개의 언어; 한국어와 독일어로 이루어져 있다. 작업 <빨대 Strohhalm>에서 나는 타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경험을 영상 매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전환하였다. 새가 물 속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 속의 물고기가 물 밖에 새가 있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한 어릴 때의 궁금증이 이 작업을 시각화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물과 공기는 작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두 나라, 한국과 독일을 대입한 소재였고, 나의 입은 다른 두 언어; 숨과 물을 통해 두 개의 다른 공간을 소통하고 연결한다. 마지막의 네 마디에는 영상이 사라지고 네 마디의 소리만 들리게 되는데, 이것은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상의 음향을 통해 작업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소통의 시도로써 "끝나지 않는 끝"을 의미한다.









빨대 Strohhalm

2013, 단채널영상, 5분 48초, 컬러, 사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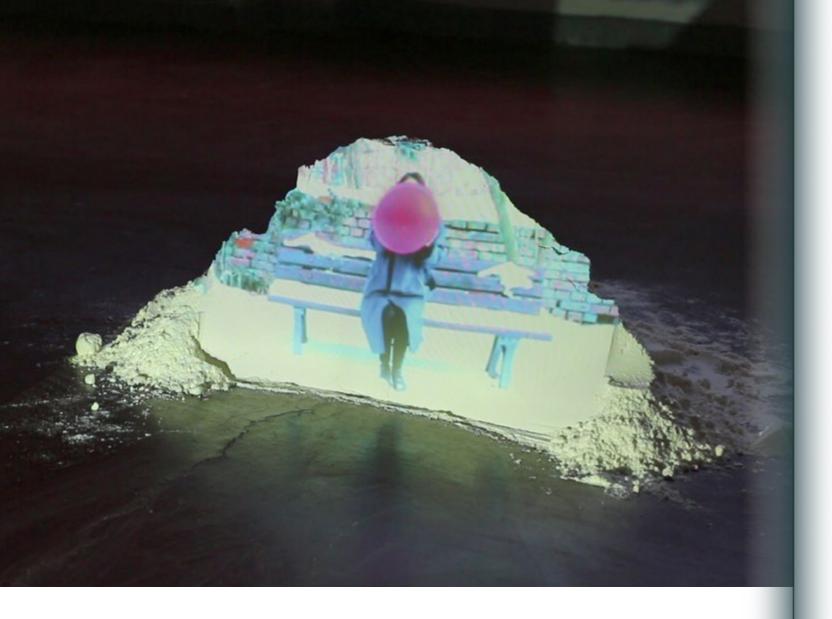


이 작업은 어떠한 언어가 소리신호로써 귀로 들어왔을 때,

의미가 되는 혹은 되지않는 상황에 기인한다. 사람의 다섯가지 지각 중에 청각 지각을 시각 적으로 재해석한다.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색을 인지하는 것을 소리언어의 이해와 불이 해의 요소로서 병치하였다.

내용과 형태로 구성되는 언어에서, 전달되지 못한 언어는

입의 움직임으로 남는다. 이 움직임의 하나인 날숨은 전달되지 못한 내용으로써 (말)풍선을 점점 부풀린다.영상의 초반에는 채워지는 말풍선는 무슨색인지 인지할 수 없지만, 빨간색이 전체영상에서 걷히고 나면 빨간색 말풍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빨간색, 빨간 실은 독일에서 중심생각, 요점의 의미를 지닌다. 영상이 투사된 하얀가루로 만들어진 작은 산과 같은 물체는 모래성과 같이 쌓을 수도 있지만 쉽게 날아가버릴 수 있는 언어의 양면성을 은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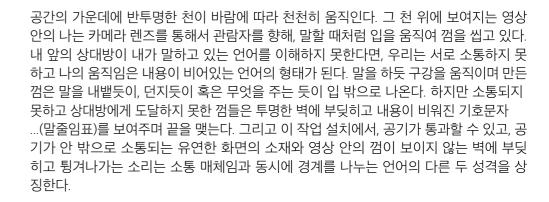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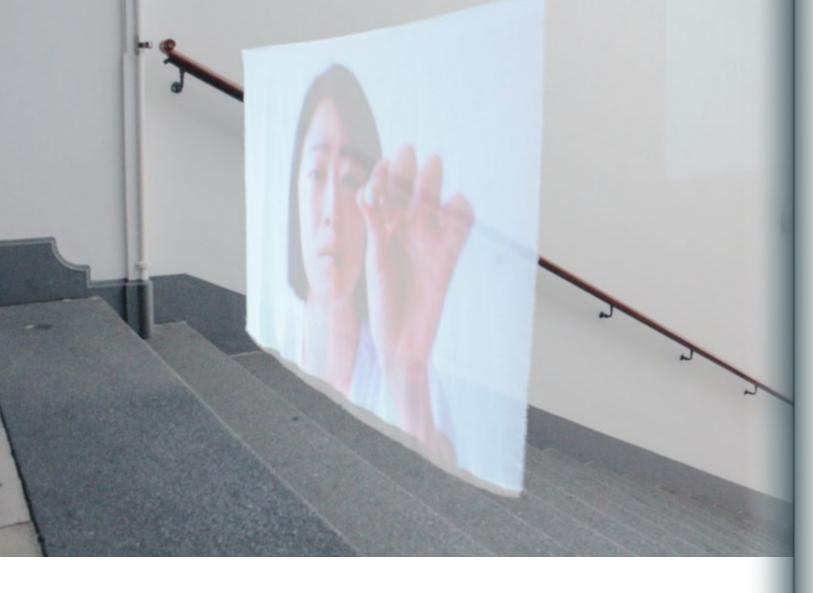




2013, 영상설치, 단채널 영상, 1분 36초, 컬러, 사운드, 밀가루















점 세개 (Three Dots)

2013,영상설치, 단채널영상, 5분 48초, 컬러, 사운드

고닥 Kodac Ko

1986년 제주 출생 독일 베를린과 제주를 오가며 거주, 활동



hjkodac@gmail.com www.kodac.net

학력

- 2014-2017 독일 브라운슈바익 미술대학 순수미술 학부 졸업 (담당교수 라이문트 쿰머) 2013-2014 터키 이스탄불 미마 시난 대학 교환학생 2011-2013 독일 드레스덴미술대학 순수미술 학부 수학 (담당교수 크리스티안 세리) 2005-2010 서울 홍익대학교 판화과 졸업 개인전 2022 내가 정말 거기 있었을까(Was I there at at all), 빈공간, 제주, 한국 2021 공간 속의 기호 (A Sign in Space), 플란츠라우어베엌 스튜디오/쿤스트 콜렉티브, 베를린, 독일 브로카의 정원 Ⅱ (BROCA'S GARDEN Ⅱ), 디스쿠어스, 베를린, 독일 더블 텅(Double Tongue), 갤러리 아스터리스크, 베를린, 독일 (온라인전시) 2020 브로카의 정원 (BROCA'S GARDEN), 새탕라움, 제주, 한국 2018 마우스피스 (MOUTHPIECE), 새탕라움, 제주, 한국 2016 거울문자 II (SPIEGELSCHRIFT II), 엑스 피어쩬, 드레스덴, 독일 2015 거울문자 (SPIEGELSCHRIFT), 아트막스, 브라운슈바익, 독일 주요 단체전, 스크리닝 2022 허그: 부유하는 세계를 껴안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한국 언캐니 빌리지(Uncanny Village), 로스트 윅엔드 미츠 영 아트(Lost Weekend meets Young Art), 뮌헨, 독일 2021 컨템포러리 오펄튜니티 파트V(CONTEMPORARY OPPORTUNITIES PART V), 알테뮨쩨, 베를린, 독일 제10회 카이로 비디오 페스티벌, 메다르 컨템포러리 아트, 카이로, 이집트 재회(Wiedersehen), 디스쿠어스, 베를린, 독일 제23회 국제 멀티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오작시 노비 사드, 세르비아 잠겨진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cked), 수러브 갤러리, 노비 사드, 세르비아 No It can assess an actioN, 라움온디멘드, 베를린, 독일 쇼.윈도우(schau.fenster), 쉬릴, 브라운슈바익, 독일 2020 쇼윈도 스크리닝, 홀 오브 페임, 드레스덴, 독일 다이브 인 브이(Dive in-V), 조선대학미술관, 광주, 한국 2019 해적극장, 플랜비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수퍼 메타 포스트 보더스, 오모스페이스, 베를린, 독일 -전(후)(P(re)-), 케팩스아우스가베, 글라루스, 스위스 플라스틱 러브 #2, 갤러리 59 리볼리, 파리, 프랑스 2018 제24회 제주미술제, 제주, 한국 탓타르랏탓-TATTARRATTAT, 악시펠, 르 아브레, 프랑스 이브리다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Ibrida Festival of the Intermediate Arts), 포를리,이탈리아 2017 수면신경증, 캘러드라이, 하노버, 독일 아,사람 참(CEEHIILNPSSWZ.ACH MENSCH),브라운슈바익 포토 뮤지엄, 브라운슈바익, 독일
- 아웃 오브 블루(OUT OF THE BLUE), 그레이라잇 프로젝트, 호엔스브로이크, 네덜란드 2016 인터네셔널 컨템포러리 아트쇼 , 중부 독일라디오방송국, 막데부르크, 독일 마알 미디어아트 어워드(Marl Media Art Awards), 글라스카스덴 마알 조각 박물관, 마알, 독일

여기 내가 서있는...- 마틴루터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전, 막트키르셰, 고슬라, 독일 두려움없이-담슈타트 세체찌온 젊은 작가상, 담슈타트 공대 쿤스트포룸, 담슈타트, 독일

- 2015 비디오 킬스-보이지않는 도시 교향악단,유티 코네비츠, 라이프찌히, 독일
- 2014 다다 티와이(DADA TY), 헬러라우공연극장, 드레스덴, 독일

수상 및 선정

- 2022 노이슈타트 쿨투어 지원금, 쿤스트폰드 재단, 노이슈타트 쿨투어 재단, 독일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제주문화재단, 제주, 한국 2019 국제예술교류지원, 제주문화재단, 제주, 한국
- 게펙스아우스가베(Gepaeckausgabe) 레지던시, 글라루스, 스위스 2017 프로젝트 펀딩, 브라운슈바익시민 재단, 브라운슈바익, 독일
- 도미네이트/담슈타트 세체찌온 젊은 작가상, 담슈타트공대 쿤스트포룸, 담슈타트, 독일
- 2016 노미네이트/마알 미디어아트 어워드 2016, 조각 박물관 글라스카스덴 마알, 마알, 독일 에이치오 갤러리 & 에이치투오 탑공원(HO Gallery & H2O Turmpark), 막데부르크, 독일
- 2013 에라스무스 교환학생프로그램, 에라스무스 장학재단,독일



교략 Kodac Ko www.kodac.net hjkodac@gmail.com



Kodac Ko (c) 2028